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혹은 자의적인 보상체제를 강요하는 사회는 필히 몰락한다. 그래서 피케티는 고율과세를 통한 과도한 재분배·평등 추구가 성장의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불평등을 더 조장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이는 그동안 서구사회의 지속적 저성장과 불평등의 원인이 역설적으로 바로 2차 대전 이후 만연돼온 재분배와 경제평등을 추구해온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에 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변영의 전제이지만 평등은 변영의 안티테제(Antithese)이다.

다섯째로, 그럼 불평등의 원천은 어디인가? 시장은 바로 스스로 돕는 자만 도움으로써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을 통해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다.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지고 우수한 재화와, 개인과 기업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바로 경제 불평등의 원천인 셈이며, 이런 우리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묶지 못하는 한 불평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다. 불평등의 책임을 자본주의에 전가하기에 앞서 책 팔아 가난한 자 돕기보다 부자되러 한국에 온 피케티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피케티는 수식은 잘 알고 자료정리에 큰 기여를 했다지만 '경제는 잘 모르는 경제학 기술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논평이 피케티의 글을 좀 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처: [http://eiec.kdi.re.kr//nara/contents/nara\\_view.jsp?sendym=201411&idx=9644](http://eiec.kdi.re.kr//nara/contents/nara_view.jsp?sendym=201411&idx=9644)  
피케티, 경제는 모르는 경제학 기술자?, 좌승희, 나라경제 11월호, KDI